

보도자료

2024년 10월 31일 전북 2024 - 61호
이 자료는 11월 1일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10월 31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

- ◆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외부전문가(호서대학교 조상섭 교수, 원광보건대학교 김강훈 교수)와 “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”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*

*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하므로
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**작성자 이름**을 반드시 **명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”

문의처 :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솔빈 조사역

Tel : (063)250-4083 Fax : (063)251-4099 E-mail : jeonbuk@bok.or.kr

“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서 지역본부-전북본부로
접속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전북본부

<붙임>

「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」 주요 내용

※ 자세한 내용은 <참고> 연구보고서 전체 내용 참조

1. 검토배경 및 연구목적

- 새로운 미래 핵심기술의 하나로 이차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도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새만금 등 4개 지역*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(2023.7.20.)

* 전북 새만금, 청주(오송), 포항, 울산

- 본 연구에서는 부문분할 방식을 사용한 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 - 이차전지산업의 기술·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하였으며, 새만금 내 입주기업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경제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

2. 분석방법론

(부문분할 방식 투입산출표)

- 본 연구는 기존의 집계분석방식과 달리 투입산출분석에 부문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
 - Wolsky(1984)의 투입산출표 분할기법을 적용하여 이차전지산업을 하위 4개 부문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 및 기타부문)으로 분할
 - 이차전지산업의 세부 부문별 생산구조의 이질성과 부문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집계방식에 비해 정교한 분석이 가능

(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)

-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(Difference-in-Differences; DiD)과 합성 대조 방법(Synthetic Control Method; SCM)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입주기업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

3.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전북경제에 대한 영향

(부문분할 방식을 이용한 분석 결과)

- (전북경제에 미치는 효과)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약 10.2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가 약 12.7조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.9조원, 취업 유발효과가 4.3만명 수준으로 나타남

-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문분할 방식에서는 이차전지 세부 부문별 기술계수의 차이, 우회생산 효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전통적 집계방식*에 비해 더 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

* 집계방식 하에서 생산유발효과는 11.1조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.3조원, 취업 유발효과는 3.6만명 수준에 그침

- (시나리오 분석) 새만금내 한·중 합작투자의 취소로 인해 투자가 5.8조원으로 감소*하는 경우, 생산 유발효과는 6.9조원 규모로 축소

* 美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우려 등으로 인해 새만금 내 한·중 합작기업들의 양극재 부문 투자규모(약 4.4조원)가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함

- 일반적인 정태적 투입산출 분석의 결과(70,289억원)에 더하여 양극재 부문의 투자 감소가 유발하는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1,384억원 규모의 생산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

(미시적 접근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)

-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,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은 非이차전지 입주기업들에 비해 매출이 9.6~24.6% 가량 증가

4. 결론 및 시사점

- 이차전지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·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
-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의 각 수행주체(전북도, 군산시, 새만금개발청 등) 간에 밀접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
- 또한 새만금 내 민간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실정과 정책수용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
- 나아가 계획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, 중장기 시계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필요